

# 한국 첫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 성공...12월 달 궤도 진입

### 목표궤적 진입 순항...첫 인공위성 '우리별1호' 후 30년만 연달 달 상공 100km 궤도 안착 시 일곱번째 달 탐사 국가

한국의 첫 달 탐사용 궤도선 '다누리'(KPLO·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달로 가는 1차 관문을 통과한 다누리는 이로써 올해 12월 말 달 궤도 진입을 목표로 5개월 간 우주 항해를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 따르면 다누리는 지난 5일 오전 8시 8분 48초 미국 민간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 X의 '팰컨 9' 발사체에 실려 발사됐다.

이어 발사 약 92분 후인 오전 9시 40분께 호주 캔버라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다. 오후 2시 기준으로 다누리는 목표했던 궤적(달 전이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과기부 등은 밝혔다.

다누리가 보내온 위성 정보를 분석한 결과, 다누리의 태양전지판이 전개돼 전력생산을 시작했고 탐사 컴퓨터를 포함한 장치들 사이에 통신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장치의 온도도 표준범위에 드는 등 다누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다누리는 앞으로 약 4개월 반 동안 태양과 지구 등 천체의 중력을 이용해 항행하는 '탄도형 달 전이 방식'(BLT·Ballistic Lunar Transfer) 궤적에 따라 이동한다.

지구에서 약 38만km 떨어진 달로 공장 가지 않고 태양 쪽의 먼 우주로 가서 최대 156만km까지 거리를 벌렸다가, 나비 모양 궤적을 그리면서 다시 지구 쪽으로 돌아와서 달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 궤적은 미국과 일본 등이 성공한 적이 있지만 기술 난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드물게 시도됐다. 하지만 연료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여 임무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다누리에 채택됐다.

김성훈 항공우주연구원 위성연구소장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가 처음 해 보는 것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궤적 설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우리 연구진들이 직접 해외에 나가서 배우기도 하고 직접 연습도 해보느라 밤새면서 했던 것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다누리가 계속 순항해 달 100km 상공의 '임무 궤도'에 도착하면 우리나라는 달에 탐사선을 보낸 세계 7번째 국가가 되며, 1992년 첫 자체 인공위성 '우리별 1호' 후 30년만에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 이상을 탐사하는 '심우주 탐사'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다누리는 연말에 목표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 달의 극지방을 지나는 원궤도를 따라 하루에 12번씩 달 주위를 돌면서 탑재한 6종의 과학장비를 달을 관찰할 예정이다. 이 중 5종의 과학장비는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것이다.

한편 다누리는 2013년에 프로젝트 착수가 이뤄졌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6년 '달 탐사 1단계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국가우주위에서 의결돼 사업이 진행돼 왔다. 올해 말까지 총 2367억원이 투입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한민국의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 호(KPLO)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의 우주군 기지 40번 발사대에서 스페이스X 팰컨9 발사체에 실려 발사되고 있다. <SpaceX 제공>



김진표 의장, '바르샤바 게토 유대인 위령탑' 참배

## “나치범죄에 대한 독일 사과, 피해국들 신뢰회복”

첫 해외순방으로 폴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6일(현지시간) 수도 바르샤바의 게토 유대인 봉기 희생자 위령탑을 찾았다. <사진> 이 위령탑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3년 독일 나치의 말살 작전에 저항해 바르샤바의 유대인 집 단거주지 게토에서 봉기를 일으켰다 희생된 유대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위령탑이다. 1970년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나치의 만행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죄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김 의장은 이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게토 희생자 위령탑을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나치가 자행한 비인도적 전쟁범죄에 대한 독일 빌리 브란트,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의 진솔한 사죄는 피해국들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독일이 유럽의 리더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의 문을 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한일관계 역시 과거 침략 역사에 대한 일본의 진심 어린 반성이 양국간 미래지향적인 관계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발신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김 의장은 이후 나치에 저항한 폴란드인들의 봉기를 기념한 '봉기 박물관'을 관람했다.

김 의장은 방명록에 “조국의 자유와 민족의 자존을 위해 외세의 폭력과 압제에 맞선 바르샤바 영웅들의 넋을 기리며, 전 세계 자유와 평화를 위한 여정에 한·폴란드 양국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고 적었다. /연합뉴스

## 코로나 신규확진 10만5507명...6일째 10만명 넘어

### 전주의 1.43배, 2주전보다 1.61배...광주·전남 6703명

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면서 7일 전국에서 10만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5507명 늘어 누적 2048만9128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1만666명)보다 5159명 적다. 주말 진단 검사 감소 영향으로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줄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긴 것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6일째다. 또한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 10만명을 넘긴 것은 4월 10일(16만4453명) 이후 17주 만에 처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지난달 31일(7만3559명)의 1.43배, 2주일 전인 지난달 24일(6만5372명)의 1.61배다.

신규 확진자 수가 1주일 단위로 2배로 뛰는 더블링 현상은 지난달 말부터 완화됐지만, 1주일 전 대비 비율은 최근 일주일 사이 조금씩 높아졌다.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4만4654명→11만1758명→11만9889명→10만7869명→11만2901명→11만666명→10만5507명으로, 일평균 10만1892명이다.

광주·전남에서 주말에도 6000명대 신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신규 확진자는 광주 3415명, 전남 3288명 등 모두 6703명이 신규 확진됐다.

광주 확진자 중 2명은 위중증 환자, 사망자는 1명이다. 전남에서도 위중증 환자 19명이 나오고 1명이 사망했다. 전남에서 시 단위인 여수(627명), 순천(520명), 목포(441명), 광양(275명), 나주(240명)에서의 확진자 발생이 두드러진다.

광주·전남에서 휴가철인 지난달 말부터 일일 확진자가 5000~7000명대를 기록하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 코로나 이후 40~50대 8명 중 1명 “돈 빌린적 있다”

### 자영업자·임시일용직, 근로소득 감소·적금 해지 경험

40대와 50대 중장년층 8명 중 1명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돈을 빌린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는 자영업자나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에게 특히 경제적으로 가혹했다. 자영업자 10명 중 7~8명, 임시·일용직의 절반 가까이가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했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Ⅷ)'(여유진 외)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6월21일~9월17일 실시한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75세 남녀 3923명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 및 가구 내 1인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연구진은 응답자들에게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돈이 필요해 금융기관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청한 적 있는지'를 물었는데, 8.5%가 '있다'고 답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대출은 40대의 12.5%, 50대의 11.5%가 경험했는데, 20대 이하(3.5%), 30대(7.7%)와의 차이가 컸다. 응답률은 자영업자(17.7%), 임시·일용직(14.5%)도 높은 편이었다. 또 비정규직(10.6%)이 정규직

(5.0%)의 2배 이상이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이 필요해 적금 및 보험을 해지한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전체의 8.4%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40대(10.5%)와 50대(11.8%)의 응답률이 20대 이하(4.6%)와 30대(7.8%)에 비해 높았다. /연합뉴스

## 지분, 땅 삽·니·다

맹지는 안삽니다.  
문의. 010-3605-5000

#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2-108호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구자나 관리자가 있을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또는 해당 공사 현장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또한, 동일 지번 내에서 추가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에 갈음합니다.

공사명	분묘 소재지	분묘 기수	분묘번호(위치)	비 고
	소개	3		
별교-주암(3-1공구)	전남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산146-1	1	No.75(STA.2+780(우))	
도로 확장 공사	전남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산146-1	1	No.76(STA.2+780(우))	
	전남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산146-1	1	No.78(STA.2+780(우))	

- 분묘소재지 및 기수
- 개장사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 「별교-주암(3-1공구) 도로확장공사」에 편입
- 개장 후 안치장소: 남골당
- 개장 후 안치기간: 안치일로부터 10년
- 공고기간: 2022. 6. 9. ~ 2022. 9. 10.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 개장방법: 사업시행자가 임의개장  
※ 공고기간 중 연구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연구자가 개장
- 신고처  
- 별교-주암(3-1공구) 도로확장공사:  
현장사무소(070-4162-1365), 우리 청 보상과(063-850-9165)  
2022. 8. 8.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분 실 공 고

- 분양계약서(플러시 읍선계약서 및 일반사 항 포함) :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470번 지 일원 무등산지아울림 115동 2401호
- 계약자: 송민준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2년 8월 8일

### 산행안내

**8월13일(토)**

▲광주호산회 8월13일(토) (지리산 한산계곡 트레킹) 오전 06시 30분 중앙동 롯데마트 7주 차량출발 07시 롯데백화점 07시15분 예술회 관후문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8월14일(일)**

▲광주산악회 8월14일(일) (지리산 칠선계곡 산행) 영주동 체육관 정문 07시 30분 에스엔빌 07시 35분 마태로21세기 07시 38분 서구청 07시 40분 농성역 6번출구 07시 45분 신세계백화점 유교역 07시 50분 문예회관 후문 07시 55분 비엔나레주호텔 도로면 08시 00분 ※ 광주산악회산악회 ☎ 010 6442 5014

**光州日報** 지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남 222-8171 • 영 신 571-7658 • 오 치 266-7601
- 영 흥 403-1503 • 우 신 433-1503

동 구

- 남 광 673-8836 • 동 광 222-9054 • 동 부 225-6001
- 송 양 222-9054 • 송 정 222-8171

남 구

- 남 부 673-8836 • 백 은 651-1833 • 봉 선 673-8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은 남 376-7153 • 치 경 378-6511 • 동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주구

- 은 남 952-1687 • 월 국 950-1920 • 청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신 944-0444

kwangju.co.kr

## 노공장 임대

**해초(다시마, 미역, 건어물) 및 생면, 수제비, 국수 제조 사업하실 분 환영합니다.**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농공단지 내**

면 적 : 공장 150평,  
냉동창고 200평 (냉동방, 냉장 3칸 높이 9m),  
지게차 2대 (전동식)

시 설 : 최신기계설비반비, 공장 즉시 가동 영업 가능  
금 액 : 보증금 및 임대료 상호협의

주인직 ☎010-2390-5343, 010-9300-5072